

[새 사상 새 로정 인술]

# 위대한 정신 전승하고 민족부흥 위한 힘 응집해야



4월 3일, 신강 우룸치에서 민중들이 우룸치렬사릉원을 찾아 열사들을 추모하고 있다. / 중신넷

습근평 총서기는 희망적인 민족에게 영웅이 없어서는 안되고 전도있는 국가에 선봉이 없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18차 당대회후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중국특색의 공훈과 영예 표창 제도와 체계를 건립하고 건전히 해 국가의 명의로 영웅렬사를 기념하고 숭고한 레우로 공훈인물을 표창했으며 실제 행동으로 선봉모범을 관심함으로써 전사회적으로 영웅을 숭상하고 영웅모범을 본보기로 삼으며 앞다투어 선봉이 되려는 량호한 분위기를 형성했다.

천지 영웅의 기개는 천추만대 이어진다. 청명절에 즈음하여 사람들은 민족의 독립해방과 국가의 번영발전을 위해 희생과 기여를 한 영웅렬사들을 추모했다. 하나 또 하나의 려사기념시설과 혁명기념장소에서 각 업종 사람들은 영웅사적을 되새기면서 분발진취의 힘을 응집했다.

리상과 신념의 빛은 꺼지지 않는다. 우리는 반드시 려사들의 유지를 받들어 피를 흘리고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

는 위대한 리상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한다.

18차 당대회후 영웅에게 경의를 드리고 영웅렬사들을 추모하기 위해 습근평 총서기는 전국 각지에 발자취를 남겼다. 강서 정강산에서 섬서 연안까지, 대별산에서 려량산까지, 회해전 역기념관에서 무순시 퇴봉기념관까지 습근평 총서기는 깊은 정을 담아 정중하게 추모했다.

여기에는 영웅렬사들에 대한 총서기의 깊은 추모와 무한한 그리움이 응집되어있다. 습근평 총서기의 발자취는 려사를 명기하고 선렬을 추모하며 영웅을 숭상하는 강대한 힘을 전당과 전사회에 주입했다.

새시대이래 우리 나라는 영렬 표창 제도 체계를 부단히 완비화했다. 2014년부터 우리 나라는 매년 9월 30일을 려사기념의 날로 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려사기념활동을 조직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영웅렬사보호법>, <렬사표창조례>, <렬사추모방법> 등 관련 법률과 법규가 지속적으로 완비화되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10년 동안 938명의 재한 중국인민지원군 려사 유해가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려사기념시설 25만여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보호관리기구가 1,600여개에 달한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라오스, 수단, 조선 등 경의 려사기념시설 건설 항목을 완성했다.

새시대이래 중앙재정은 려사 유가족 무훈금 표준을 연속 상향 조절하고 '무명렬사의 이름을 되찾는' 유가족 찾기 업무를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각지에서는 현지 실정에 결부하여 일련의 려사 유가족의 양로와 의료 등 특혜 조치를 내왔다. 호북성은 마을과 향진, 현 3급 대상 지원 기제를 건립하여 려사 유가족을 위한 업무처리 일상화, 장기화 기제를 건립했고 호남성은 려사 부모의 양로와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조치를 강구했다.

영웅은 민족의 기둥이다. 습근평 총서기의 직접적인 추진하에 려사 표창에서 공훈모범인물 표창까지 새

시대이래 우리 나라는 중국특색의 공훈과 영예 표창 제도 체계를 건립하고 건전히 함으로써 갈수록 더 많은 각 전선의 억만 분투자 걸출 기여 대표들이 국가와 사회의 존중을 받았다.

올해는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5주년이 되는 해이다. 얼마전 중공중앙 판공청은 국가 훈장과 국가 영예칭호 평의, 발표, 수여 활동을 전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건설과 발전에 결출한 기여를 한 일부 공훈모범인물을 성대하게 표창한다는 통지를 냈다.

영웅을 숭상해야만이 영웅을 키워낼 수 있고 앞다투어 영웅이 되려 해야만이 영웅이 용솟음쳐나올 수 있다. 전생년대에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피 흘려 싸운 선렬들에서 평화시기 각 전선에서 아낌없이 기여하며 용감하게 책임을 수행한 영웅모범들까지, 한명 또 한명의 영웅모범인물들은 한쪽 또 한쪽의 기치이자 하나 또 하나의 기념비로서 드팀없이 앞으로 전진하도록 억만 인민들을 고무하고 있다. / 중앙인민방송

## 영국 법학자

### 저서 통해 남사군도 주권 증명

저서 《남해의 려사와 주권》의 작가인 영국의 국제법 전문가 앤서니 카르티 교수는 “남사군도는 고대부터 중국 려토에서 갈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이었고 남사군도에 대한 중국의 주권은 충분한 려사적·법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북경에서 열린 학술연구토론회에서 카르티는 자신이 쓴 《남해의 려사와 주권》의 창작 과정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카르티는 10여년 시간을 걸쳐 프랑스·영국·미국의 19세기말 이후 남사군도 주권에 관한 국가 기록물을 열람하고 현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통해 그는 남해섬과 암초의 려사적 변천과 귀속 상황을 상세히 정리하고 남사군도의 주권 문제를 명확히 밝혀냄으로써 남사군도의 주권이 중국에 있음을 증명하고 남사군도 주권 연구에 중요한 려사적 자료와 국제법적 증거를 제공했다.

카르티는 주로 국제법 및 국제관계의 철학과 려사를 연구중이며 대표작으로 《국제법의 쇠퇴》, 《국제법 철학》 등이 있다.

남사군도의 주권 귀속 문제와 관련하여 제2차 세계대전 기간과 그 후의 일련의 문서는 오래동안 남사군도가 중국 려토임을 분명히 해왔다. 그러나 려토 분쟁에서 중립을 지키겠다는 미국은 남해가 잠잠



3월 20일, 북경리공대학 법학원, 북경국제법학회와 신성출판사가 주최한 《남해의 려사와 주권》 학술연구토론회가 북경 중관촌 번등서점에서 개최되었다. 앤서니 카르티 교수가 자신이 쓴 《남해의 려사와 주권》의 창작 과정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 북경리공대학넷

해지자 필리핀 등 나라를 부추기며 중국에 ‘갑질’을 일삼고 있다.

도요새와 조개가 서로 다투면 누가 리익을 얻을까?

중앙방송총국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경대학 인문사회과학연구원 명예방문교수이기도 한 카르티는 남해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을 밝혀냈다.

그는 인터뷰에서 “남사군도 주권에 대해 프랑스·영국·미국 려사 기록물에 명백한 진실이 적혀있는데 그들은 국제무대에서 모르는 척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국제방송

##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 :

### 중국, 동남아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

중국이 동남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로 꼽혔다.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는 1월 3일-2월 23일 아세안 10개국 학계·재계·민간조직·언론·정부 및 지역·국제 기관의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2024 동남아 현황 보고서>를 2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59.5%가 중국이 동남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대국이라고 답했다. 미국은 14.3%에 그쳤다. 동남아에 대한 전략적·정치적 영향력 부문에서도 중국은 상위권에 올랐다.

보고서는 응답자 대부분이 대 중국 관계에 낙관적이었다고 밝혔다. 향후 3년간 자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개선될 것 혹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50% 이상이었다. 동시에 미국을 “조금



1월 2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할림역 대학실에서 한 어린이가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고속전동차 초 모형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 신화넷

신뢰한다 또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지난해 32%에서 올해 40.1%로 증가했다.

중국이 제시한 인류문명공동체 건설 리념에 대해서는 31.3%의 응답자가 이 리념이 아세안의 발전 방향과 상호 보완성이 있다고 답했다.

/ 신화넷

## 포브스 2024년 부자 순위 발표



저커버그, 2023년 9월 27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 신화넷

최근 포브스가 2024년 세계 억만장자 명단을 발표했다. 올해 전세계 억만장자수와 재산총액은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개인자산의 변화에서 우리는 현재 전세계 자본이 향하고 있는 방향을 엿볼 수 있다. 주목할 만한 현상중 하나는 AI 열풍이 ‘기술 신진 세력’을 대거 탄생시켰다는 것이다.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전세계 10억달러 이상의 재산을 가진 억만장자수가 2,781명에 달해 2021년에 세운 기록보다 26명 더 많았다. 그들의 재산총액도 사상최고치인 14.2조달러에 달해 지난해에 비해 2조달러 증가했다.

지난 한해 전세계에서 자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10명의 자산 증가액은 약 5,070억달러에 달했다. 이중 8명이 미국 과학기술 대기업이고 6명이 현재 미국 주식시장의 과학기술 대기업 7곳과 관련이 있다. 그들의 자산 증가는 대부분 생성적(生成式) AI에 대한 시장의 추구로 회사 주가가

상승한 덕분에 얻어졌다.

그중에서도 메타(Meta)의 수석 집행관 저커버그는 지난 1년 동안 세계에서 재부가 가장 많이 성장한 사람이다. 대규모 감원과 AI 및 메타버스(元宇宙) 선정으로 지난 1년 동안 메타의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저커버그의 순자산은 1,126억달러 증가했고 포브스 부자 순위도 지난해의 16위에서 올해 4위로 크게 올랐다.

또 눈여겨볼 인물은 엔비디아(英伟达)의 수석집행관 황인훈이다. 그는 엔비디아 주가 급등에 힘입어 올해 처음으로 세계 20대 부자 반열에 올랐는데 지난해보다 재산이 560억달러 가까이 불어났다.

이 밖에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신진 세력으로 올해 10억달러 이상 재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10명 있다. 여기에는 엔비디아와 깊은 협력관계를 가진 슈퍼마이크로(超微) 컴퓨터회사의 창시자 랑견후와 그의 부인 류추주 등이 포함되었다. 이 밖에 반도체회사 AMD의 수석 집행관 소자봉도 개인 순자산이 12억달러에 달했다.

미국 담뱃회사 자선관리회사 공동 창

시자인 테크 콜린턴은 이번 판에 주식 상승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현재 글로벌산업의 중심이 AI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며 가장 큰 수혜자는 AI 연구 개발에 중심을 둔 회사들이라고 분석했다.

상장회사외에도 AI 스타트업(初创企业) 창시자들이 자본의 눈길을 끌어 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50억달러로 추정되는 다기능 노트 소프트웨어(笔记软件) Notion 창시자 조이는 지분 보유로 올해 억만장자에 등록했다. 또 26억달러 상당의 AI 로봇회사 피규어 AI의 창업자 브렛 애드콧도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스타트업 데이터베이스 Crunchbase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 반적으로 벤처(风险) 투자가 둔화된 배경 속에서 AI를 핵심으로 하는 스타트업은 거의 500억달러의 자금을 모았다. 그중 OpenAI가 가장 많은 투자를 받아 800억달러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올해 OpenAI의 수석집행관 알트먼은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 억만장자 중 한명이 되었다.

/ 중앙인민방송